

플라톤의 『국가』에서 모방과 정치성¹⁾

- I. 머리말
- II. 모방
 - 1. 모방의 올바름
 - 2. 모방의 이로움
- III. 모방작품
 - 1. 모방작품과 실재
 - 2. 모방작품과 사람됨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플라톤의 『국가』에서 언급된 모방과 정치성을 논구한다. 특히 이 대화편 2권과 3권은 교육과 관련해 시의 내용과 형식을, 10권은 시(모방작품)와 시인의 특성을 실재 및 도덕과 관련해서 언급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 대화편 2, 3, 10권의 논의를 쫓아가면서 모방과 모방작품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을 통해 모방의 정치성을 밝힌다.

• 주제어

모방, 시, 정치성, 올바름, 이로움, 시인비판, 실재, 사람됨

1)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74-AM0011).

2)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I. 머리말

플라톤은 『국가』에서 지혜로운 치자(治者)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장황하게 논의한다. 그는 시가, 체육, 수학적 분과들, 변증술, 현실적 경험 등의 교육과정을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 첫 단계가 시가(詩歌, mousikē)³⁾교육이다. 그래서 이 대화편에서 시가에 관한 논의는 교육과 관련되어 있으며 시인 및 모방을 파악할 때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방이 순수 문예 이론보다는 훌륭한 인성의 소유자, 더 나아가 훌륭한 치자의 양성에 좋은 영향을 주는 시의 창작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점은 모방을 통제함으로써 젊은이들의 인성에 좋은 영향을 주어 훌륭한 나라를 실현하려는 열망과 관련된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모방은 훌륭한 인성형성 및 좋은 나라의 실현과 연관된 정치성의 측면을 지닐 수밖에 없다.

또한 시가교육은 훌륭한 치자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한 단계일 뿐 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다. 그 때문에 시가가 담당할 수 없는 교육적 기능을 철학이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플라톤 당시까지 시가가 담당해 온 교육적 역할과 관련해 철학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이런 당위성은 시가와 충돌을 일으켰다. 이것도 문화 권력과 연관된 정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치성이란, 그 주체가 무엇이든, 개인이나 사회의 좋음(선)의 실현을 위해 힘을 발휘하는 데에서 그 존재이유를 갖는다. 따라서 플라톤의 모방 비판이 정치성을 떨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좋은 시의 창작을 통해 개인과 국가의 좋음(선)의 실현을 열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플라톤의 시인 및 모방 비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가에 관한 언급은 이 대화편 2권과 3권 그리고 10권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2권과 3권에서는 교육과 관련해 시인들이 다루어야 할 내용과 형식을, 10권에서는 모방작품과 시인의 특성을 실재 및 도덕과 관련해서 언급한다. 따라서 이 글은 이 대화편 2, 3, 10권의 논의를 쫓아가면서 시작(詩作, 모방)과 시인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을 통해 그의 모방개념과 정치성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3) ‘mousikē’는 ‘시가(詩歌)’라 번역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음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음송되는 시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II. 모방

플라톤은 『국가』 2권에서 이론상(logō) 성향에 따른 분업에 기초한 ‘최소한도의 나라’를 세운 다음, 거기에서 ‘호사스런 나라’로 확대되어 감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호사스런 나라에서는 온갖 직업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 영토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결국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나라를 지키고 다스릴 수호자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들이 수행해야 할 일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맡을 일보다도 더 중요하며 더 전문성을 요한다. 그래서 이에 적합한 아이들을 선발해서 교육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먼저 플라톤은 체육(gymnastikē)교육에 앞서 혼(마음)과 관련된 시가교육을 아이들에게 실시해야 한다고 한다.⁴⁾ 17, 8세까지의 시가교육은 어리고 연약한 청소년한테는 특히 중요하다. 이때야말로 가장 유연해서 누군가가 새겨주고 싶은 인상이 있다면 무엇이든 제일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다.⁵⁾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지어낸 아무 이야기를 닥치는 대로 아이들에게 듣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플라톤은 시가의 내용을 제한하는 모방의 올바름(orthotēs)과 그것의 이로움(ōphelia)에 관해 논의한다. 즉 시적 모방을 통제한다.

1. 모방의 올바름

플라톤에 의하면 모방의 올바름(orthotēs)은 모방된 대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고, 이 올바름을 알아야만 비로소 작품이 훌륭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모방작품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모방했는가, 어느 정도 올바르게 모방했는가, 모방이 얼마만큼 훌륭한가라는 세 요소를 알아야만 한다.⁶⁾

그런데 이 세 요소에 비추어 『국가』 2권, 3권에서 시인들을 비난하는 까닭은, 화가가 어떤 것을 그것과는 전혀 닮지 않게 그리는 것처럼, 시인이 신

4) 『국가』 376e. 이후의 인용은 박종현 역주, 플라톤의 『국가·政體』(서광사, 1997)에 의한 것이다.

5) 같은 책, 377a-b.

6) 『법률』 668b-669b.

들과 영웅들의 성격을 말로써 나쁘게 묘사하는 것이다.⁷⁾ 다른 비난은 시인들이 신을 그 자체로 정확히 묘사해야 한다는 규범(typos)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⁸⁾ 시인들의 작품이 젊은이들의 인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orthōs) 못한 모방작품이다. 그러나 시인이 훌륭한 대상을 올바르게 모방한다면, 시인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나쁜 것을 그 자체로 정확히 묘사한 작품도 그 나름으로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쁜 것을 알게 됨으로써 나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가 모방이고, 모방은 어떤 대상을 모방하는 것인 한, 모방의 본을 충실히 모방하는 모방의 올바름이 요구된다. 모방의 올바름은 모방작품을 판단하는 사람한테만이 아니라 모방자인 시인한테도 모방의 규범으로서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 사물의 모방과 관련해 모방의 올바름을 구현하려는 기술은 모방의 규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회화나 시에 모방된 모방물들은, 그것들이 올바르게 모방되었더라도, 본성에서 세 단계나 떨어진 주관적 것이어서, 사물 자체의 본래적 ‘용도’(chreia)⁹⁾와는 관련이 멀기 때문이다. 모방대상의 사용자나 제작자는 그것의 훌륭함과 나쁨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모방자는 모방대상의 ‘훌륭함’(aretē)과 아름다움(kallos) 및 올바름(orthotēs)’에 관한 정확한 앎을 지니고 있지 않다.¹⁰⁾ 그러니 모방은 모방대상의 훌륭함이나 나쁨에 관한 지식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착각을 통해 아이들이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속일 때,¹¹⁾ 또는 아무 것도 모르는 많은 사람한테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것을 모방할 때,¹²⁾ 그것에 정통하지도 않은 채, 의도적으로 모방내용을 말과 음악으로 채색하는 시인이 비판된다.¹³⁾ 왜냐하면 모방자는 자기가 모방하는 것들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시인이 기술의 영역만이 아

7) 『국가』 377e.

8) 같은 책, 379a.

9) 같은 책, 601d.

10) 같은 책, 602a.

11) 같은 책, 598c.

12) 같은 책, 602b.

13) 같은 책, 601a-b.

니라 훌륭함이나 나쁨과 관련된 인간사를 언급하면서도¹⁴⁾ 그것들을 종종 진지하지 않게 모방한다. 그래서 플라톤은 현실에서 올바른 추구를 모방을 진지하게 요청한다.

그러나 모방의 올바름이 어느 정도 실현된 작품이라도, 감각적 사물과 이데아가 구별되는 한, 감각적 사물을 모방한 작품은 사물의 본질 또는 진실에서 세 번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모방자는 참된 인식을 지닌 자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 플라톤은 중요한 인간사와 관련된 시가에 대해 모방의 다음과 같은 규범들¹⁵⁾을 제시한다.

첫째, 신을 신인 그대로 묘사해야만 한다. 즉 신을 나쁜 것들까지 포함한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라 좋은 것들의 원인으로 묘사해야만 한다. 둘째, 신을 마치 마법사처럼 언행에서도 거짓으로 우리를 오도하는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셋째, 어린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야만 한다. 넷째, 이름난 영웅들의 통곡이나 비탄도 없애야 한다. 다섯째, 젊은이들이 웃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되게 해서도 안 된다. 여섯째, 젊은이들이 정직(진실, *alētheia*)을 귀히 여기게 해야 한다. 일곱째, 젊은이들이 절제를 갖추게 해야 한다. 여덟째, 올바르지 못한 자들은 행복하지만 올바른 이들은 비참하고, 또한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는 것은, 들키지만 앎는다면, 이득이 되지만, 올바름은 남에게는 좋은 것이되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묘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모방의 이로움(*ōphelia*)과 관련해, 모방작품인 시가 세 번째 존재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방된다고 말할 수 없다. 도덕적 이로움과 관련해 실제로 『국가』 3권에서는 시인의 역할이 인정되고, 10권에서는 신들에 대한 찬가와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찬양¹⁶⁾이 허용된다. 그러나 모방의 이로움은 모방을 도덕과 관련해 판단하는 것이어서, 모방의 직접적 요소가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시인이 기분 내키는 대로 작품 활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¹⁷⁾ 『국가』 2권, 3권에서 모방의 규범(*typos*)들은 제시되었다. 따라서 시인들의 모방행위에 대한 통제는 시에 대한 단순한 부정보다는 시가 젊은이

14) 같은 책, 598e.

15) 같은 책, 379a-392c.

16) 같은 책, 607a.

17) 같은 책, 656c.

들의 인성형성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며 거기에 분명히 정치성의 의미가 있다.

그렇긴 해도 플라톤은 지나치게 훌륭한 인성형성과 연관해 시의 내용과 형식을 엄격히 규제했다. 그러나 그 당시 시가 교육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시인들에게 엄격한 규범을 통해 훌륭한 시의 창작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 수 있다.

2. 모방의 이로움

앞에서 살펴본 모방에 대한 도덕적 요구와 관련해 모방의 기준이 되는 것이 모방의 이로움(*ōphelia*)이다. 그것은 감정에 미치는 모방의 영향에 관한 것으로, 플라톤은 모방작품인 시가 감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¹⁸⁾ 즉 시는 인간의 강제적이거나 자발적 행위를 모방하지만,¹⁹⁾ 그것은 인간의 혼에서 상반되는 두 경향, 즉 이성과 법 그리고 감정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성과 법은 괴로움에 대해 절도를 지키며, 빨리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지시하지만, 비겁과 친근한 것인 감정은 고통에 대한 기억 쪽으로 그리고 비탄 쪽으로 이끈다.²⁰⁾ 따라서 ‘분별있고 침착한 성격’²¹⁾은 앞의 것의 지시에 따르며 모방하기 쉽지 않지만, ‘화를 잘 내는 성격’²²⁾은 뒤의 것의 지시에 이끌리기 쉽고 시의 모방대상이 된다.

화를 잘 내는 성격은 다채로운 모방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해되기도 쉽다.²³⁾ 화를 잘 내는 성격으로 모방된 영웅들을 보고, 사람들은 자신의 화를 잘 내는 부분을 그 모방에 내맡긴 상태로 따라가면서 즐거워한다.²⁴⁾ 시는 혼의 지각없는 부분에 영합하고 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상들을 제작함으로써 개개인의 혼 안에 나쁜 통치체제²⁵⁾를 생기게 한다.

18) 같은 책, 602c-607a.

19) 같은 책, 603c.

20) 같은 책, 604a-b.

21) 같은 책, 604e.

22) 같은 책, 604e.

23) 같은 책, 605a.

24) 같은 책, 605c-d.

하지만 『국가』 10권에서 모방대상과 관련해, 시가 ‘화를 잘 내는 성격’을 모방한다고는 하지만, ‘분별있고 침착한 성격’을 모방할 수 있다고도 한다. 그 성격은 언제나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모방하기가 쉽지 않고, 모방하더라도 특히 ‘축제 때 극장에 모여든 온갖 부류의 사람들’한테는 이해되기가 또한 쉽지 않다.²⁶⁾ 그리고 혼의 비판하는 부분의 방임이 무엇보다도 비난받을지라도,²⁷⁾ 혼의 최선의 부분이 이성과 습관에 의해 충분히 교육을 받는다면,²⁸⁾ 혼은 ‘비탄하는 성격’을 모방한 시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비판하는 부분을 방임하지 않을 것이다.

10권에서 ‘화를 잘 내는 성격’의 모방에 의해 영향을 받은 혼이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면, ‘분별있고 침착한 성격’의 모방에 의해 영향을 받은 혼은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분별있고 침착한 성격’을 모방한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능력이 필요하다. 분별있고 침착한 혼은 그것을 닮은 대상을 모방한 시(모방작품)를 통해서 형성된다. 그렇다면 시 가운데서도 모방적인 것²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모방을 배척한다기보다는, ‘모방의 이로움’과 관련해 장차 훌륭한 수호자가 될 젊은이들이 모방할 것은 훌륭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Ⅲ. 모방작품

이렇듯 젊은이들의 인성형성에 시가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면, 시인들은 아무거나 모방해서는 안 되고, 훌륭한 것들만을 모방한 시를 창작해야 한다. 그래서 훌륭한 것들을 모방하지 않는 일부 시인과 시(모방작품)가 비판된다.

그런데 『국가』 10권에서는 모든 시인이 모방자들로 규정되고³⁰⁾ 모든 모방술이 신랄히 비판된다. 그 때문에 모든 시인과 모방작품이 비판되는 것처럼

25) 같은 책, 605b.

26) 같은 책, 604e.

27) 같은 책, 605c.

28) 같은 책, 606a.

29) 같은 책, 595a.

30) 같은 책, 600e.

보이기도 한다. 플라톤이 10권에서 모든 시인과 모방작품을 비판하려 했다면, 이는 2권과 3권에서 시가교육을 중요시했다는 점에 배치된다. 그렇다면 그가 10권에서 시인들 및 모방작품들에 대해 문제 삼은 내용은 무엇이고, 그의 비판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모방작품과 실재

『국가』 10권에서 종래에 시가 담당했던 교육을 철학이 담당하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 때문에 시작 행위의 성격과 그 대상에 관한 존재론적 위상이 언급된다. 시나 그림을 통한 문예활동은 모방행위로 규정되며, 모방의 대상은 실재인 이데아가 아니라 현상이기 때문에, 모방을 통한 제작물은 실재에서 세 단계나 떨어져 있고 그만큼 진실에서 멀리 있다. 특히 10권에서 ‘모방’(mimēsis)은 단순한 흉내 정도를 가리키는 3권의 모방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그것은 시가나 그림 등의 예술을 통한 일체의 묘사 활동을 가리킨다.

플라톤은 모방작품을 규정하기 위해 침상을 예로 든다. 침상에는 세 부류가 있다. 하나는 침상의 이데아(형상)로 ‘참으로 침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이데아를 본으로 삼아 장인이 제작한 ‘하나의 침상’이다. 또 다른 것은 장인이 제작한 침상을 보고 화가가 그린 침상이다. 첫 번째 것은 ‘본질(physis)에 있어서 침상인 것’이며 그것의 창조자는 ‘본질 창조자’(phytourgos)이다. 두 번째 것은 ‘어떤 한 침상’이며 그것의 제작자는 장인(dēmiourgos)이다. 따라서 화가가 그린 침상은 본질 또는 실재성으로부터 세 번째 산물이며, 화가도 장인들이 제작한 것의 ‘모방자’(mimētēs)로서 본질로부터 세 번째 사람이다. 이처럼 모방물인 시가와 시인도 실재 또는 진실에서 세 번째 것일 뿐이다.³¹⁾ 따라서 모방자의 작품인 시가도 진실(진리: alētheia)의 모방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의 모방’(mimēsis phantasmatos)이다.³²⁾

모방술(hē mimētike)은 각각의 것의 영상(eidōlon)만을 건들일 뿐이어서, 이에 능한 모방자도 ‘지식’과 관련해서는 참된 앎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이를테면 화가는 구두 만드는 사람과 목수 그리고 다른 장인들을 우리에게 그려주

31) 같은 책, 596b-597e.

32) 같은 책, 598b.

지만, 그는 이 기술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정통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훌륭한 화가는, 목수를 그린 다음 멀리서 보여주어, 진짜 목수인 것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아이들이나 생각 없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한다.³³⁾

비극(tragōdia)의 선구자인 호메로스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시인들이 모든 기술을, 그리고 훌륭한(덕) 및 나쁨(악덕)과 관련된 모든 인간사도, 그리고 신들의 일도 알고 있어서, 훌륭하게 ‘시작(詩作)을 할’(poiein) 수 있다고 생각한다.³⁴⁾ 하지만 플라톤은 정말로 이들이 모방하고 있는 것들에 관해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의심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지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모방하는 것들에 관해 참으로 알고 있다면, 그는 모방작품들보다도 실제 행위들 쪽에 훨씬 더 진지할 것이고, 많은 훌륭한 행적을 자신의 기념물들로 남기려 힘쓸 것이며, 찬양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찬양받는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러나 호메로스를 위시한 시인들은 가장 중대하고 가장 훌륭한 것들, 즉 전쟁과 전략, 나라의 경영, 그리고 인간 교육과 관련해 단지 모방만 했지, 그들의 직접적인 활동 결과로서 훌륭한 행적을 남기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훌륭한(덕)의 영상들의 모방자들이며, 그들이 관련짓고 있는 그 밖의 다른 것들의 모방자들에 지나지 않으며 진리를 포착하지는 못한다.³⁵⁾

화가는 자신이 구두 제조와 관련해 지식이 없으면서, 역시 지식이 없이 다만 색채들과 형태들로만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구두 만드는 이로 보이는 자’를 그림으로써 만들어 낼 뿐이다. 이처럼 시인도 각각의 기술의 몇 가지 색채를 낱말들과 구들을 이용하여 채색한다. 그는 그것들에 대해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모방할 따름이나, 역시 잘 모르면서 시인이 한 말을 갖고 판단하는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구두 제조에 관해서 운율(metron)과 리듬(rhythmos) 그리고 선법(harmonia)에 맞추어 말할 경우에는, 아주 잘 말한 것으로 여긴다. 이는 전략이나 그 밖의 어떤 것에 관해서 언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시인들의 작품들이 음악적 색채들을 갖기고서, 그것들 자체로만 표현되었을 때는 그런 매력은 사라진다. 따라서 영상 제작자, 즉 모방자는 ‘실재’(to on)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의 ‘현상’(to

33) 같은 책, 598b-c.

34) 같은 책, 598d-e.

35) 같은 책, 599c-600e.

phainomenon)에 대해서만 알 뿐이다.³⁶⁾

또한 화가나 시인이 참된 앎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고삐나 재갈의 예를 통해서도 밝힌다. 화가는 고삐와 재갈을 그릴 것이고, 가죽재단사나 대장장이는 그것들을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고삐와 재갈이 어떤 것이어야만 하는지 알지 못하며, 이것들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 즉 말타는 사람만이 이를 안다. 이 각각의 경우에 세 가지 기술, 즉 ‘사용하는 기술’과 ‘만드는 기술’ 그리고 ‘모방하는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도구와 생물 및 행위의 훌륭함(aretē)과 아름다움(kallos) 및 옳음(orthotēs)은 다름 아닌 용도(chreia), 즉 그 각각이 만들어졌거나 생기게 된 용도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자가 가장 경험이 많으며, 그가 사용하는 것의 실제 사용에서 그 제작자가 어떤 것들을 잘 만들었거나 잘못 만들었는지를 그 제작자에게 알려주는 자가 될 게 필연적이다. 그러니 도구의 제작자는 그것을 아는 자, 즉 사용자한테서 듣게 됨으로써 그것의 훌륭함(아름다움)과 나쁨에 관한 ‘옳은(바른) 믿음’(pistis orthē)을 갖게 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자는 그것에 관한 ‘지식’(epistēmē)을 갖고 있다. 반면 모방자는 자기가 모방하는 것들에 대한 훌륭함(아름다움) 및 나쁨과 관련하여 지식도 옳은 믿음도 지니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시작(詩作)을 통한 모방자도 자기가 창작하는 것들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나쁘거나 좋은지를 알지도 못한 채 모방한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많은 사람한테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모방한다. 따라서 모방자는 자기가 모방하는 것들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또 모방은 일종의 놀이로 진지한 것이 못되며, 진리에서 세 번째인 것에 관한 것이다.

이렇듯 플라톤은 『국가』 10권에서 모방자로서의 시인을 비판한다. 즉 시(모방작품)는 실재 및 지식과 관련해서 큰 가치를 갖지 못한다. 실재와 관련해 시는 그 모방대상에 비해 이차적이다. 시는 그 대상을 주관적으로 모방하기 때문이다. 특히 형상(이데아)이 참된 존재라면, 시는 실재에서 세 번째 것이다. 그리고 지식과 관련해서도 모방대상의 훌륭함이나 나쁨과 관련해 시인들은 정통하지 못하다.

플라톤이 굳이 시인들한테는 지식이 없다는 점을 밝힌 까닭은 고대 헬라스

36) 같은 책, 601b.

에서의 시인들의 역할 때문이다. 플라톤은 호메로스가 언급하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훌륭한 것들, 즉 전쟁과 전략, 나라의 경영, 그리고 인간교육과 관련해서 그가 지식을 갖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훌륭한 행적을 남겼는가³⁷⁾에 의구심을 표현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 당시 시인의 역할 및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고, 또 플라톤의 모방 비판이 정치성을 떨 수 밖에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모방작품과 사람됨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사람됨(사람의 훌륭함, aretē)³⁸⁾의 문제를 사람한테만 있는 사람 특유의 기능(ergon)과 연관해서 이해했다. 사람의 훌륭함은 저마다 사람 특유의 기능을 알고 이를 훌륭히 수행할 때 실현을 본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람 특유의 기능을 인간의 정신적 측면에서 찾았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이성(logos)으로, 플라톤은 지성(nous)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들로서는 훌륭한 인성의 형성, 즉 훌륭한 사람됨의 실현과 관련해 젊은이들한테서 이성적 능력을 계발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시인들은 이성이 아닌 감정(pathos)에 호소하는 작품활동을 함으로써 젊은이들의 인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모방활동을 플라톤은 비판한다.

이를 비판하기 위해 플라톤은 회화를 먼저 논의한다. 회화는 시각과 관련되어 있으며, 시각은 가까이서나 멀리서 보는 것에 따라, 물속에서나 물 밖에서 볼 때에 따라, 그리고 색채들과 관련된 착시로 인해 사물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보이게 함으로써 혼속에 여러 혼란이 생기게 한다. 회화는 혼의 이런 상태를 이용한 음영 화법과 요술 및 그 밖의 많은 고안을 갖고 있으며 일종의 마법과 같다.

측정하고 계산하며 계량하는 혼의 부분, 즉 ‘헤아리는(이성적인) 부분’의 활용을 통해 이런 혼란을 제거해야만 한다. 그러나 회화는 측정된 것들과 어긋

37) 같은 책, 599c-d.

38) aretē는 보통 덕으로 옮겨진다. 하지만 이 경우 ‘사람의 훌륭함’으로 옮겨졌다. 모든 사물에는 그 종류 나름의 ‘훌륭한 상태’가 있겠는데, 이를 ‘aretē’라 말한다. 이는 대개 그 종류 나름의 기능이나 구실, 할 일(ergon) 또는 용도(chreia)와 관련해서 하는 말이다. ‘덕’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 구실과 관련된 ‘훌륭함’을 말하는 것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람의 눈과 관련해서는 ‘훌륭한 상태’는 말할 수 있어도, ‘덕’을 말할 수는 없다.

나게 생각하는 부분, 즉 혼의 ‘분별과는 멀리 떨어진 상태로 있는 부분’과 사귀면서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변치 않은 작품을 만들어 낸다.³⁹⁾ 다시 말해 회화는 변변찮은 것과 어울리어 변변찮은 것들을 낳는 변변찮은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각과 관련된 모방술⁴⁰⁾도 강제적이거나 자발적인 행위들을 하는 인간들을, 그리고 이들이 행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훌륭하게 행하였다거나 또는 잘못 행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모든 것에서 괴로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을 모방한다. 이때 인간은 시각과 관련해서처럼 혼속에서 자기 자신과 분쟁을 치르며 싸움을 하게 된다.

이러한데 아들을 잃는 불행을 당했을 경우, 사람들은 괴로워하거나 괴로움과 싸우며 저항하는 대립상태를 겪는다. 그때 괴로움에 대해 저항하도록 지시하는 이성(logos)과 법(nomos)은 절도를 지키며, 가급적 빨리 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반면 비겁과 친근한 것인 감정(pathos), 즉 비이성적 부분은 고통에 대한 기억 쪽으로 그리고 비탄 쪽으로 이끈다.

따라서 화를 잘 내는 성격은 다채로운 모방을 수용하지만, 분별있고 침착한 성격(ēthos)은 언제나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방하기가 쉽지 않고, 모방하더라도 축제집회 때 극장에 모여든 온갖 부류의 사람들한테는 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모방적인 시인의 성향은 이성적 부분보다는 화를 잘 내며 다채로운 성격을 향하고, 모방하기가 쉽다.⁴¹⁾

시인도 화가처럼 진리에 비해 변변찮은 것들을 제작하며, 비이성적 부분에 따른다. 이 때문에 훌륭한 나라에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시인이 이 부분을 일깨우고 강화시킴으로써 헤아리는(이성적인) 부분을 파멸시키기 때문이다.⁴²⁾ 즉 그는 더 큰 것들과 더 작은 것들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혼의 지각없는 부분에, 동일한 것들을 때로는 크다고 믿고 때로는 작다고 믿는 혼의 부분에 영합함으로써, 그리고 진실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영상들을 제작함으로써 개개인의 혼을 나쁜 상태로 만든다.

39) 같은 책, 602d-603b.

40) 형태나 색채를 사용하는 화가와 다르게 시인은 운율(metron)과 리듬(rhythmos)과 선법(harmonia)를 사용해서 시를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든다.

41) 같은 책, 604e-605a.

42) 같은 책, 605b.

더 나아가 시는 선량한 사람까지도 능히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것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난을 받는다. 플라톤은 호메로스나 비극시인들이 영웅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걸 그리고 비탄 속에서 긴 사설을 늘어놓는 걸 모방하는 것이나 노래를 하면서 제 가슴을 치는 걸 모방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런 시에 의해 훌륭한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즐기고 그것에 자신을 맡긴 채로 그걸 따라가서 자신의 불운에 용기 있게 대처하지 못한다.

또한 사람들은 희극적 모방에 의해 자신 속에 웃기고 싶어하는 부분을 이성애 의해 억제했다가 이를 다시 풀어주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희극시인처럼 될 수 있다. 이것 외에도 성욕, 걱정, 욕구 및 마음의 피로운 일들과 즐거운 일들에 관한 시들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한다.⁴³⁾

호메로스가 헬라스의 교육자로서 가장 시인답고 그의 가르침 또한 인간사의 경영 및 교육과 관련해 따를만하더라도, 신들에 대한 찬가들과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찬양들만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서정시든 서사시든 즐겁게 하는 시를 받아들인다면, 그 나라에서는 법과 이성 대신에 즐거움과 피로움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⁴⁴⁾

플라톤의 시인비판은 좋음과 올바름이라는 가치의 실현, 즉 사람됨과 연관된 것이다. 하지만 시인들도 철학자들에 대해 못지않게 대항했다.⁴⁵⁾ 이런 철학과 시 사이의 불화(diaphora)는 철학이 시가 떠맡았던 교육의 기능을 점차 대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점은 문화권력과 연관된 정치성으로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이 논문은 플라톤에서 모방(mimēsis)과 모방의 정치성을 『국가』 2, 3, 10권의 논의를 쫓아가면서 논의했다. 특히 2권과 3권에서는 교육과 관련해 시의 내용과 형식을, 10권에서는 모방작품과 시인의 특성을 실재 및 도덕과 관련해서 언급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다음과 같다.

1) 시가 교육과 관련되는 한, 모방 비판도 교육과 관련해 생각되어야만 한

43) 같은 책, 606d.

44) 같은 책, 606e-607a.

45) 같은 책, 607b-d.

다. 그것이 훌륭한 인성형성을 위한 것일 때, 모방에 관한 규제들은 정당성을 갖는다. 이점은 모방의 정치성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시인은 신들과 영웅들의 성격을 딸로 나쁘게 묘사하고, 신을 신인 그대로 정확히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된다. 모방작품이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모방이다. 그러나 시인이 훌륭한 대상을 올바르게 모방한다면, 시인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2) 플라톤은 모방작품인 시가 감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시는 인간의 행위를 모방하지만, 특히 감정에 굴복하기 쉬운 성격, 이를테면 '화를 잘 내는 성격'을 모방한다. 이런 성격을 모방한 작품(시)을 접한 사람들은 자신의 화를 잘 내는 부분을 방임한 채, 즐거워한다. 따라서 모방적 시인은 그가 이 부분을 일깨워 이성적인 부분을 과멸시키고, 진실에서 멀리 있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개인의 혼 안에 나쁜 통치체제가 생기게 한다고 비판된다. 이런 비판은 '모방의 이로움'과 관련된 것이다.

3) 시는 '실재성'에서 으뜸가는 것이 못되고 시인도 실재에 대한 '인식'(지식)에서 으뜸가는 전문가일 수 없다. 그래서 『국가』 10권에서 플라톤은 시를 '모방'으로 정의하고, 이상국가에서 추방한다. 시인은 '실재'(형상)를 직접 모방할 수 없다. 그가 모방하는 것은 감각적 사물, 즉 실재와 같은 것이되, 실재는 아닌 어떤 것이고, 따라서 '모방'의 결과인 작품도 실재 또는 진실과 관련해서는 감각적 사물보다 한층 더 가치가 낮고, 형상에서 세 단계나 떨어져 있어 그만큼 진실에서 멀리 있다.

4) 시인들이 모방자로 비판되긴 하지만, 훌륭한 사람들이나 훌륭한 것들을 모방하는 시들과 시인들은 허용되어야 한다. 즐거움만을 위한 시, 즉 이성을 마비시켜 올바름과 그 밖의 훌륭함들을 도외시하게 할 만한 시는 비판된다. 만일 훌륭한 사람이나 훌륭한 것들만을 모방하게 한 요구가 지나치다면, 즐거움을 위한 시와 모방이 훌륭히 다스려지는 나라에 있어야만 하는 정당성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시가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이로운 것이고, 호메로스에 대한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즐거움을 위한 시의 정당성을 밝힐 수는 없다.

• 참고문헌

1. 헬라스어 원전

Platonis Opera I - V, Oxford Classical Texts. Oxford: Clarendon Press, 1990.

2. 헬라스어 원전 및 번역 동시 수록 전집

Plato I - VII,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Univ. Press, 1952.

Platon I, II, Oeuvres Completes, Association Guillaume Bude, 1950.

Platon Werke IV - VII,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7.

3. 번역 및 주석서 그리고 일반서적

박중현 역주, 플라톤의 『국가·政體』, 서광사, 1997.

타타르키비츠 지음, 손효주 옮김, 『미학사1』 (고대미학), 미술문화, 2005.

J. Adam, *The Republic of Plato* I, II, Cambridge Univ. Press, 1963.

D.J. Allan, *Plato: Republic Book I*, Methuen, London, 1953,

R.E. Allen (ed), *Studies in Plato's Metaphysic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5.

W.D. Anderson, *Ethos and Education in Greek Music*, Cambridge, Mass., 1966.

J. Annas, *An Introduction to Plato's Republic*, Clarendon Press, Oxford. 1981.

J. Barron, *An Introduction to Greek Sculpture*, London, 1977.

A. Bloom, *The Republic of Plato*, Basic Books, 1968.

C.L. Brownson, *Plato's Studies and Criticisms of Poets*, Boston, 1920.

V.J. Bruno, *Form and Colour in Greek Painting*, London, 1977.

F.M. Cornford, *The Republic of Plato*. London: Oxford, 1972.

R.G. Collingwood, *The Principles of Art*,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4.

R.C. Cross and A.D. Woosley, *Plato's Republic: Philosophical Commentary*.

- London. Macmillan, 1964.
- J.A. Elias, *Plato's Defence of Poetry*, Albany, 1984.
- G. Else, *The Structure and Date of Book 10 of Plato's Republic*, Heidelberg, 1972.
- E.H. Gombrich, *Art and Illusion*, London, 1977.
- G.M.A. Grube & C.D.C. Reeve, *Plato: Republic*, Hackett, 1992.
- S. Halliwell, *Republic 10*, Aris & Phillips, 1988.
- , *Republic 5*, Aris & Phillips, 1993.
- E. Havelock, *Preface to Plato*, Cambridge, Mass. and London, 1963.
- R.R. Hollway, *A View of Greek Art*, New York, 1974.
- W. Jaeger, *Paideia: The Ideals of Greek Culture*, transl. G. Highet, New York, 1943.
- E.C. Keuls, *Plato and Greek Painting*, Leiden, 1978.
- H. Koller, *Die Mimesis in der Antike*, Bern, 1954.
- H.D. Lee, *The Republic*. Introduction and translation. Penguin Books, 2nd ed., 1974.
- R.C. Lodge, *Plato's Theory of Art*, New York: 1975.
- V. Menza, *Poetry and Technē Theory*, Diss. Johns Hopkins, 1972.
- N. Murphy, *The Interpretation of Plato's Republic*. Oxford: Clarendon Press, 1951.
- R.L. Nettleship, *Lectures on the Republic of Plato*, Macmillan, London, 1962.
- W.J. Oates, *Plato's View of Art*, New York, 1972.
- M.H. Partee, *Plato's Poetics: The Authority of Beauty*, Salt Lake City: 1981.
- R. Patterson, *Image and Reality in Plato's Metaphysics*: Hackett Publishing Co. Inc., 1985.
- J.J. Pollitt, *Art and Experience in Classical Greece*, London, 1979.
- A. De Ridder & W. Deonna, *Art in Greece*, London, 1968.
- B. Schweitzer, *Platon und die Bildende Kunst der Griechen*, Tübingen, 1953.

- G. Sörbom, *Mimesis and Art*, Stockholm, 1966.
- W. Tatarkiewicz, *A History of Six Ideas*, Warszawa: Martinus Nijahoff, The Hague, Warszawa, 1980.
-, *History of Aesthetics I, Ancient Aesthetics*, ed., by J. Harrell, Mouton, Paris: The Hague, 1970.
- W.J. Verdenius, *Mimesis: Plato's Doctrine of Artistic Imitation and Its Meaning to Us*, Leiden, 1972.
- J.G. Warry, *Greek Aesthetic Theory*, London, 1962.
- R. Waterfield, *Plato: Republic*, Oxford, 1994.
- T.B.L. Webster, *Art and Literature in Fourth Century Athens*, New York, 1969.
- N.P. White, *Plato on Knowledge and Reality*.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 1976.
-, *A Companion to Plato's Republic*, Blackwell, Oxford, 1979.
- W.K. Wimsatt & C. Brooks, *Literary Criticism: A Short History*, New York, 1964.

4. 논 문

- 서승원, 「플라톤의 시와 예술에 대한 비판」, 『西洋古典學研究』 6집, 한국서양고전학회, 1992.
-,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관」, 『西洋古典學研究』 8집, 한국서양고전학회, 1994.
- G. Ardley, "The Role of Play in the Philosophy of Plato" in *Philosophy*, 1967.
- E. Belfiore, "Plato's Greatest Accusation Against Poetry" in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suppl. vol. 9, 1988.
- R.G. Collingwood, "Plato's Philosophy of Art" in *Mind* 34, 1925.
- G. Else, "Imitation in the Fifth Century" in *Classical Philosophy* 53, 1958.
- A.H. Gilbert, "Did Plato Banish the Poets or Critics?" in *Studies in Philology* 36, 1939.
- W.C. Green, "Plato's View of Poetry" in *HSCP* 29, 1918.

- T. Gould, "Plato's Hostility to Art" in *Arion* 3, 1964.
- D.R. Grey, "Art in *Republic*" in *Philosophy* X X VII, 1952.
- D. Hamlyn, "*Eikasia* in Plato's *Republic*", *Philosophical Quarterly* 8, 1958.
- J.P. Maguire, "The Differentiation of Art in Plato's Aesthetics" in *HSCP* 68, 1964.
- R. McKeon, "Literary Criticism and the Concept of Imitation in Antiquity" in *Modern Philology* 34, 1936.
- L. Moss, "Plato and the *Poetics*" in *Philological Quarterly* 50, 1971.
- A. Nehamas, "Plato on Imitation and Poetry in *Republic* 10" in *Plato on Beauty, Wisdom, and the Arts*, eds. J. Moravcsik and P. Temko (Totowa, N.J.), 1982.
- J. Standard, "Socratic Eros and Platonic Dialectic" in *Phronesis* 4, 1959.
- R.G. Steven, "Plato and the Art of His Time" in *Classical Quarterly* 27, 1933.
- J. Tate, "Imitation in Plato's *Republic*" in *Classical Quarterly* 22, 1928.
- , "Plato and Imitation" in *Classical Quarterly* 26, 1932.
- W.J. Verdenius, "Der Begriff der Mania in Platons Phaidros" in *Archiv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ie* X X IV, 1962.
- T.B.L. Webster, "Greek Theory of Art and Literature Down to 400 B.C." in *Classical Quarterly* 33, 1939.

Imitation and Politic in Plato's *Republic*

This paper is discussing imitation and politic being dealt with in Plato's *Republic* thoroughly. Particularly *Republic 2, 3* explains contents and forms of poetry in relation to education, and *Republic 10* explains characters of poetry and poet in relation to moral. So this paper considers meaning of imitation and politic through Plato's critic of imitation and poet following discussion of *Republic 2, 3, 10*.

Key Words : Imitation, Poetry, Politic, Rightness, Advantage, Critic of Poet, Reality, Virtue